

## 치기공과 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연관성

강 월, 김웅철, 김지환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치의기공학전공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students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Wol Kang, Woong-Chul Kim, Ji-Hwan Kim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of Health Science,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job seeking stress,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students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Method:** For this, the students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in daegu and daejeon and wonkwang university selected at May 2016. A question investigation was used in a entry method of self-estimation. Furthermore a total of 151 person was used as final analysis data. Statical analysis was performed with SPSS 22.0. An analysis of frequency, two sample t-test,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Results:** Firstly, personal expenses affected beneficially statistically the Job Seeking Stress( $p<.05$ ). Secondly, sex, Score, Major satisfaction, personal expenses affected beneficially statistically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05$ ). Thirdly, University environment and academic stress in the Job Seeking Stress affected beneficially statistically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choice target).

**Conclusion:** The study found out that there was significant effect when increased to university environment and academic stress in Job Seeking Stress,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decreased. So the study proved that when helping students facing difficulties due to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t is important to decreased their university environment and academic stress.

◉Key words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Job-searching stress

|      |             |  |     |               |        |                     |             |
|------|-------------|--|-----|---------------|--------|---------------------|-------------|
| 교신저자 | 성명          | 김 지 환                                      | 전화  | 010-6270-0341 | E-mail | kjh2804@korea.ac.kr |             |
|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하나과학관 B동 374호 |     |               |        |                     |             |
| 접수일  | 2016. 7. 30 |  | 수정일 | 2016. 9. 23   |        | 확정일                 | 2016. 9. 27 |

## I. 서론

올바른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 발달 단계를 보면 초등학교 단계에는 진로를 인식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한 다음에, 대학교 단계에서는 진로 전 문화의 발달에 주력하는 시기라 구분하였다(Herr & Cramer, 1992). 이처럼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생애를 통틀어서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가장 적성에 맞는 적합한 직업군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정창훈, 2012). 그러나 치기공과를 선택한 대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가 전문직이라서, 두 번째가 가족이나 타인의 권유로, 세 번째가 취업이 잘 돼서라고 응답하였다(정효경, 2006; 이종도와 정영해, 2009). 이를 토대로 볼 때, 치기공과에 입학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6년 3월 실직자 수가 1,15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9천명이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25세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이 119천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 청년층 실업률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실제로 청년실업률은 노동인력의 양적인 증가와 일자리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취업가능성은 낮아지고,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은 증가하였다(김미경, 2008).

마찬가지로 한국의 치과기공사 인력은 1980년대 중반 이미 초과 공급되었고(김원태, 2004), 2003년도에는 치과기공사 면허취득자 대비 활동자수의 구성비가 41%로 79.4%로와 60.7%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현숙, 2003). 이처럼 보건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 전에 치르는 국가시험의 합격여부가 향후 졸업과 취업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선민, 2009).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서 느끼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긴장상태라고 말한다(Hanish, 1999).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우울증으로 병

원을 찾는 20~29세 청년들이 약 5만명에 육박한다고 보고하였고, 그 중에서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증 및 불안장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층이 겪고 있는 취업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이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우울증 이외에도 진로성숙도, 자기효능감, 생리적 증상(박수민, 2013) 및 성격특성, 신체적 증상, 정신건강, 심리적 반응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의사를 결정하는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도와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Scott & Ciani, 2008). 자기효능감이란 어려운 상황을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개인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데,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한다(Bandura, 1977). 실제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며, 문제 중심의 해결능력이 낮아지고, 불안이나 우울증이 나타난다(차경호, 2004).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상황을 더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미영, 2012). 그러므로 실업률과 취업스트레스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진로지도가 중요한 시점이다(허남정, 2011).

그러나 현재까지 치기공과 재학생의 진로에 관한 연구는 진로장벽(이화식, 2010), 진로의식(배봉진, 2010), 진로계획(배봉진, 2011), 전공 선택 확신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전문 직업성의 매개효과(정효경, 2015)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이고, 취업스트레스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대, 대전대, 원광대 치기공과 재학생을 학교, 학년별로 층화를 주고,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두 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고, 구직활동에 자신감을 심어 줌으로써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대구보건대, 대전보건대, 원광보건대 치기공과 2, 3학년 재학생 중에서 180명을 층화 임의추출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151명을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혼합하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와 학년, 성별, 직전 학기 성적, 전공 만족도 및 용돈 수준에 따른 일반적 특성 6문항과 취업스트레스 22문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5문항으로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연구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처리를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취업스트레스 검사는 강유리가 제작한 것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검사지는 성격 스트레스 요인 6문항, 취업불안 스트레스 요인 3문항, 가족환경 스트레스 요인 5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 요인 4문항, 학업 스트레스 요인 4문항으로 총 5개의 하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성격, 취업불안, 가족환경, 학교환경, 학업 스트레스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0.85, 0.77, 0.86, 0.85, 0.83 이었고, 전체 취업 스트레스의 Cronbach's Alpha 값은 0.94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은 이은경이 제작한 것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지는 목표선택 11문항, 직업정보 5문항, 문제해결 3문항, 미래계획 6문항으로 각각의 Cronbach's Alpha 값은 0.90, 0.80, 0.72, 0.79 이었고, 전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Cronbach's Alpha 값은 0.94로 나타났다.

자료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및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 과

###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학은 대구가 32.5%, 대전이 29.8%, 원광이 37.7%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2학년이 49%, 3학년에 51%로 나타났다. 학점은 3.5~4.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돈 수준은 20만원 이하, 26~30만원, 30~35만원, 21~2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                   | Variables       | No  | %     |
|-------------------|-----------------|-----|-------|
| University        | Daegue          | 49  | 32.4  |
|                   | Daejeon         | 45  | 29.8  |
|                   | Wonkwang        | 57  | 37.7  |
| Sex               | male            | 59  | 39.1  |
|                   | female          | 92  | 60.9  |
| Grade             | second          | 74  | 49    |
|                   | third           | 77  | 51    |
| Score             | < 2.0           | 10  | 6.6   |
|                   | 2.0~2.5         | 15  | 9.9   |
|                   | 2.5~3.0         | 39  | 25.8  |
|                   | 3.5~4.0         | 57  | 37.7  |
|                   | 4.0≤            | 30  | 19.9  |
| Satisfaction      | very Satisfied  | 14  | 9.3   |
|                   | Satisfied       | 97  | 64.2  |
|                   | Middle          | 35  | 23.2  |
|                   | Dissatisfaction | 5   | 3.3   |
| personal expenses | ≤20             | 44  | 29.1  |
|                   | 21~25           | 22  | 14.6  |
|                   | 26~30           | 40  | 26.5  |
|                   | 31~35           | 21  | 13.69 |
|                   | 35≤             | 24  | 15.9  |
|                   | Total           | 151 | 100.0 |

\* p<.05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에서는 용돈 수준만이 취업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특히 용돈수준이 취업 스트레스 하위 항목 중에서는 가족 환경, 학교환경, 학업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Table 2. Job Seeking Stress according to the personal expenses

| Stress            | personal expenses | M±SD      | F     |
|-------------------|-------------------|-----------|-------|
| Character stress  | ≤20               | 2.44±0.60 | 1.93  |
|                   | 21~25             | 2.54±0.89 |       |
|                   | 26~30             | 2.18±0.72 |       |
|                   | 31~35             | 2.13±0.79 |       |
|                   | 35≤               | 2.10±0.85 |       |
| Anxiety stress    | ≤20               | 2.23±0.78 | 2.11  |
|                   | 21~25             | 2.42±0.95 |       |
|                   | 26~30             | 2.16±0.84 |       |
|                   | 31~35             | 1.81±0.69 |       |
|                   | 35≤               | 2.13±0.84 |       |
| Family stress     | ≤20               | 2.65±0.83 | 3.06* |
|                   | 21~25             | 2.83±0.98 |       |
|                   | 26~30             | 2.44±0.82 |       |
|                   | 31~35             | 2.47±0.86 |       |
|                   | 35≤               | 2.02±0.90 |       |
| University stress | ≤20               | 2.27±0.75 | 3.89* |
|                   | 21~25             | 2.70±0.88 |       |
|                   | 26~30             | 2.19±0.77 |       |
|                   | 31~35             | 2.22±0.91 |       |
|                   | 35≤               | 1.78±0.83 |       |
| Academic stress   | ≤20               | 2.44±0.76 | 2.70* |
|                   | 21~25             | 2.69±0.83 |       |
|                   | 26~30             | 2.44±0.84 |       |
|                   | 31~35             | 2.17±0.79 |       |
|                   | 35≤               | 1.99±0.85 |       |
| Overall stress    | ≤20               | 2.43±0.60 | 3.53* |
|                   | 21~25             | 2.65±0.77 |       |
|                   | 26~30             | 2.29±0.67 |       |
|                   | 31~35             | 2.20±0.72 |       |
|                   | 35≤               | 1.96±0.65 |       |

\*  $p < 0.05$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직전학기 성적, 전공 만족도 및

용돈 수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문항에서 문제해결과 미래계획이 남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Sex

| Self-efficacy    | Sex    | M±SD      | t     |
|------------------|--------|-----------|-------|
| Choice target    | male   | 3.24±0.61 | 0.69  |
|                  | female | 3.17±0.64 |       |
| Job information  | male   | 3.14±0.58 | 0.87  |
|                  | female | 3.04±0.69 |       |
| problem solution | male   | 3.25±0.64 | 2.09* |
|                  | female | 3.01±0.72 |       |
| Future planning  | male   | 3.08±0.61 | 2.15* |
|                  | female | 2.85±0.66 |       |
| Overall          | male   | 3.19±0.56 | 1.43* |
|                  | female | 3.05±0.57 |       |

\*  $p < 0.05$

Table 4.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Score

| Self-efficacy    | Score   | M±SD      | F     |
|------------------|---------|-----------|-------|
| Choice target    | < 2.0   | 3.06±0.54 | 1.33* |
|                  | 2.0~2.5 | 2.77±0.58 |       |
|                  | 2.5~3.0 | 3.05±0.40 |       |
|                  | 3.5~4.0 | 3.32±0.70 |       |
|                  | 4.0≤    | 3.44±0.64 |       |
| Job information  | < 2.0   | 3.22±0.58 | 2.03  |
|                  | 2.0~2.5 | 2.81±0.61 |       |
|                  | 2.5~3.0 | 2.91±0.50 |       |
|                  | 3.5~4.0 | 3.16±0.76 |       |
|                  | 4.0≤    | 3.23±0.57 |       |
| problem solution | < 2.0   | 3.30±0.51 | 0.46  |
|                  | 2.0~2.5 | 2.93±0.55 |       |
|                  | 2.5~3.0 | 3.10±0.59 |       |
|                  | 3.5~4.0 | 3.10±0.84 |       |
|                  | 4.0≤    | 3.16±0.67 |       |
| Future planning  | < 2.0   | 3.00±0.39 | 0.91  |
|                  | 2.0~2.5 | 2.77±0.59 |       |
|                  | 2.5~3.0 | 2.84±0.49 |       |
|                  | 3.5~4.0 | 2.98±0.76 |       |
|                  | 4.0≤    | 3.10±0.68 |       |

| Self-<br>efficacy | Score   | M±SD      | F     |
|-------------------|---------|-----------|-------|
| Overall           | < 2.0   | 3.10±0.43 | 2.63* |
|                   | 2.0~2.5 | 2.80±0.53 |       |
|                   | 2.5~3.0 | 3.00±0.26 |       |
|                   | 3.5~4.0 | 3.18±0.67 |       |
|                   | 4.0≤    | 3.27±0.55 |       |

\* p<.05

Table 5.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 Self-<br>efficacy   | Major<br>satisfaction | M±SD      | F     |
|---------------------|-----------------------|-----------|-------|
| Choice<br>target    | very Satisfied        | 3.61±0.80 | 3.67  |
|                     | Satisfied             | 3.21±0.57 |       |
|                     | Middle                | 3.11±0.63 |       |
|                     | Dissatisfaction       | 2.65±0.85 |       |
| Job<br>information  | very Satisfied        | 3.33±0.84 | 1.00  |
|                     | Satisfied             | 3.05±0.62 |       |
|                     | Middle                | 3.10±0.59 |       |
| problem<br>solution | Dissatisfaction       | 2.84±0.99 | 1.37  |
|                     | very Satisfied        | 3.29±0.83 |       |
|                     | Satisfied             | 3.03±0.65 |       |
| Future<br>planning  | Middle                | 3.26±0.78 | 3.13* |
|                     | Dissatisfaction       | 2.93±0.55 |       |
|                     | very Satisfied        | 3.37±0.65 |       |
|                     | Satisfied             | 2.93±0.63 |       |
| Overall             | Middle                | 2.86±0.59 | 2.92* |
|                     | Dissatisfaction       | 2.50±0.96 |       |
|                     | very Satisfied        | 3.46±0.71 |       |
|                     | Satisfied             | 3.09±0.52 |       |
|                     | Middle                | 3.07±0.53 |       |
|                     | Dissatisfaction       | 2.69±0.85 |       |

\* p<.05

직전학기 성적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문항 중에서는 목표선택이 직전학기 성적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전공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문항 중에서는 목표선택과 미래계획이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용돈 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있는

Table 6.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Personal expenses

| Self-<br>efficacy   | personal<br>expenses | M±SD      | F     |
|---------------------|----------------------|-----------|-------|
| Choice<br>target    | ≤20                  | 3.30±0.61 | 5.23* |
|                     | 21~25                | 2.74±0.65 |       |
|                     | 26~30                | 3.14±0.59 |       |
|                     | 31~35                | 3.26±0.45 |       |
|                     | 35≤                  | 3.50±0.65 |       |
| Job<br>information  | ≤20                  | 3.10±0.60 | 4.88* |
|                     | 21~25                | 2.65±0.67 |       |
|                     | 26~30                | 3.00±0.66 |       |
|                     | 31~35                | 3.26±0.36 |       |
| problem<br>solution | 35≤                  | 3.41±0.70 | 0.52  |
|                     | ≤20                  | 3.06±0.71 |       |
|                     | 21~25                | 3.03±0.80 |       |
|                     | 26~30                | 3.05±0.63 |       |
| Future<br>planning  | 31~35                | 3.17±0.54 | 2.65* |
|                     | 35≤                  | 3.26±0.83 |       |
|                     | ≤20                  | 2.96±0.62 |       |
|                     | 21~25                | 2.66±0.72 |       |
| Overall             | 26~30                | 2.85±0.63 | 4.57  |
|                     | 31~35                | 3.06±0.44 |       |
|                     | 35≤                  | 3.22±0.72 |       |
|                     | ≤20                  | 3.15±0.52 |       |
|                     | 21~25                | 2.74±0.60 |       |
|                     | 26~30                | 3.03±0.56 |       |
|                     | 31~35                | 3.20±0.37 |       |
|                     | 35≤                  | 3.39±0.60 |       |

\* p<.05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문항 중에서는 목표선택과 직업정보가 용돈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 4.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모든 독립변인들 간에는 취

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목표선택)의 관계를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음(-)의 상관관

계를 형성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값은 -.175에서 .780으로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80보다 작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Job Seeking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Character stress  | 1      |        |       |        |        |        |       |       |   |
| Anxiety stress    | .780*  | 1      |       |        |        |        |       |       |   |
| Family stress     | .617*  | .609*  | 1     |        |        |        |       |       |   |
| University stress | .619*  | .651*  | .520* | 1      |        |        |       |       |   |
| Academic stress   | .586*  | .705*  | .574* | .687*  | 1      |        |       |       |   |
| Choice target     | -.190* | -.175* | -.114 | -.318* | -.294* | 1      |       |       |   |
| Job information   | -.107  | -.117  | -.128 | -.206* | -.203* | .774*  | 1     |       |   |
| problem solution  | -.059  | -.071  | -.102 | -.176* | -.154  | -.494* | .555* | 1     |   |
| Future planning   | -.062  | -.077  | -.082 | -.118  | -.245* | .753*  | .715* | .390* | 1 |

\* p<.05

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계수, 2004).

### 5.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목표선택과 미래계획만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가 목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교 환경과 학업 스트레스가 목표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의 목표선택에 대한 설명력(R<sup>2</sup>)은 36.1%로 나타났으며, 학교 환경과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목표선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8).

취업스트레스가 미래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업스트레스가 미래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28.3%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미래계획)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8. The job seeking stress affect the choice target.

| Variables     | B    | β    | t     | P   |
|---------------|------|------|-------|-----|
| Character     | -.06 | -.08 | -.60  | .54 |
| Anxiety       | .12  | .06  | 1.13  | .26 |
| Stress Family | .08  | .11  | 1.09  | .27 |
| University    | -.20 | -.26 | -2.28 | .02 |
| Academic      | -.18 | -.24 | -1.99 | .04 |

\* R<sup>2</sup> = 36.1

Table 9. The job seeking stress affect the future planning.

| Variables     | B    | β   | t    | P   |
|---------------|------|-----|------|-----|
| Character     | .01  | .12 | .01  | .93 |
| Anxiety       | .12  | .11 | .16  | .27 |
| Stress Family | .02  | .08 | .03  | .80 |
| University    | .03  | .09 | .04  | .77 |
| Academic      | -.32 | .09 | -.40 | .01 |

\* R<sup>2</sup> = 28.3

## IV. 고 찰

사회가 급변하고 미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서 취업을

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은 이 시대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걱정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최현석,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목표한 진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업스트레스를 규명하여 성공적인 취업전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하여 대구, 대전, 원광대학으로 나누어 60부씩 설문지를 배포함으로써 학생 수의 비율을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맞추고자 노력하였고, 학생 수의 변화를 감안하기 위하여 학생 모집단을 2, 3학년으로 나누어 각 층으로부터 층화 임의추출을 하였다. 1학년을 배제한 이유는 저학년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 지수가 낮다는 선행연구가 있기 때문이다(김명옥과 박영숙, 2012)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에 따라 취업스트레스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소제(201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용돈 수준에서는 2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 용돈 수준이 낮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돈수준이 적을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 환경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정환경이 불우할수록 치기공과 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애, 2005; 탁승현, 2012). 또한 전공 만족도가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에 대한 자신감을 말하는데(Bandura, 1977), 선행연구에서도 낮은 자기효능감은 전공교과를 기피하고, 진로에 대한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꺼리게 만든다고 보고했다(김행수, 2009). 이처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모든 일에 걱정과 불안이 앞서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반복됨으로써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점차 소극적

이고 부정적으로 변하여 결국 실패율이 높아진다고 하였다(김혜영, 2008; 이순정, 2010). 치기공과에 대한 최은재(2012)의 연구에서도 부정적으로 휴학이나 자퇴를 생각하는 이유로 전공과목이 어렵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학과 진학에 후회하는 가장 큰 요인이 전공과목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때문에 치기공과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는데(김명옥과 박영숙, 2012; 전도현, 2009),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대학생들이 취업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대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취업스트레스가 목표선택과 미래계획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미영(201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미경(2004)의 연구에서도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서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유정 등(2004)의 연구에서도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증진됨과 동시에 취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취업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이 해결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김민지, 2015).

목표선택은 학교환경과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평수 등(201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계획은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이순주(2010)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현 시대의 직업의 변화가 어느 때보다 빠르다는 것으로 인식되며, 세분화와 전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김평수 등, 2012).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특정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한

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기공과 재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심층 분석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치기공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치기공과 재학생들의 취업태도를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 론

대구, 대전, 원광대학 치기공과 재학생 151명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용돈 수준이 취업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성별, 직전학기 성적, 전공 만족도 및 용돈 수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취업 스트레스 중에서 학교 환경과 학업 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목표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자 한다면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Bae BJ, Lee HS, Park MH. The research on the Career Consciousness of the College Students (Revolve around D College Dental Technology Student). J Kor Acad Dent Tech, 32(4), 395-409, 2010.

Bae BJ, Lee HS. The research on the Career Plan of the Dental Technology Students (Revolve Around D College Students). J Kor Acad Dent Tech, 33(4), 474-494, 2011.

Bandura A. The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1977.

Cha KH.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23), 321-337, 2004.

Choi HS, Lee YS, Ha JC. A study on the impact of stress on self-confidence in job-seeking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2(2), 313-322, 2011.

Choi UJ, Yu SH. A Research on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34(3), 263-271, 2012.

Hanisch AK. Job and Unemployment Research from 1994 to 1998 ;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 188-220. 1999.

Heo NJ. The effects of career assistance program on job stress and career self-efficacy of young job seeker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sung University. 2011.

Herr L, Cramer SH.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an: Systematic approaches, 4th ed, New York: Harper Colins, 1992.

Jang HS, Demand and supply planning for the dental professions.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145, 2003.

Jeong CH. The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and self-efficacy of middle-school girls. The Graduate School of Jeju

- national University, 2012.
- Jeon DH. The way of stimulate the instuctions for employment in college.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onggi University, 2009.
- Jeong GH.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college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2005.
- Jung HG. The Directions of Policy toward Skillful Technicians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for the Improvement of Job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Application to th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J Kor Acad Dent Tech*, 28(1), 83-102, 2006.
- Jung HK, Kwak DJ, Choi JY. The Mediating Effects of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election Convi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J Kor Acad Dent Tech*, 37(4), 285-293, 2015.
- Kang MY. Moderation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 seeking activity, Spec 5 activity, on the relation of Job Preparing Stress and the Adjustment to College of University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2.
- Kim GS.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SPSS Academy, 2004
- Kim HS. The influences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self efficacy o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2009.
- Kim HY. The Influence of Adolescents-Perceived Parental Upbringing Attitudes and Self-efficacy upon Their School Adap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Chung-Ang University, 2008.
- Kim MJ. The Effects of SNS Use Time on Job-Seeking Stress for College Students; Using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arameters. The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2015.
- Kim MK, The Effect of Anxiety Level for the Cognition of Employment Possibility of University Student. The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2008.
- Kim MO, Park YS.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ing Behavior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order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1), 69-90, 2012.
- Kim PS. The study about the effect on self-effectiveness of a course decision of duty stress in the college students related to guard major study.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Journal*, 2012.
- Kim WT et al. Status of labor and management of the supply of dental technicians. *J Kor Acad Dent Tech*, 3-108, 2004.
- Lee HS, Bae BJ, Park MH. A study on the Career Barriers of College Students (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in D-College). *J Kor Acad Dent Tech*, 32(3), 157-169, 2010.
- Lee HS, Bae BJ, Jang GH. Research on the major selection and the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in D-College). *J Kor Acad Dent Tech*, 33(4), 427-440, 2011.
- Lee JD, Jung YH..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Rate of Dental TechnologySchool Graduates in Daegu and the Supply and

- Demand of Dental Technician Work Forces. The J Kor Acad Dent Tech, 31(1), 37-54, 2009.
- Lee MK.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students of university.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2004.
- Lee SJ. Relationship of Parental Attitude to Career Maturity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2010.
- Lee UJ et al. The effect of Job Seeking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students of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Dong-Ah University, 2004. Employment a statistics sectio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mployment trend data, 14-16, 2016.
- Oh SJ. A Study on the Job-seeking Stress and the Career Maturity of Teachers' College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2010.
- Park SM. The Employment Stress,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 in Collegian of Health Related Departments. The Graduate School of Kyongbuk University, 2009.
- Park SM.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on their job-seeking stres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sung University, 2013.
- Scott AB, Ciani, KD. Effects of an undergraduate career class on men's and woman'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4(3), 263-285, 2008.
- Tak SH. Relation of Family Strength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Self-Efficacy to their Career Maturity.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Sooncheon National University, 2012.